

맞춤형 정책으로 도시민 유입 지속

익산시가 도시민 농촌도전의 실
질적 고민을 해결해주는 맞춤형
'귀농귀촌'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도농복합도시로서 교통, 교육, 문화, 체
육 복지 인프라 등 우수한 농촌 정주
여건 위에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위
한 '유치·준비·정착·사후관리' 4단계 맞
춤형 정책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귀농귀촌인 마을 환영회

▲도시민 유치...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정보 제공'

시는 청년부터 은퇴자까지 다양한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귀농귀촌 상담 및 교육 각종 박람회·홍보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귀농귀촌 유치 박람회 5회, 전라북도 상담홍보전 2회, 도시민 교육 및 상담 2회 등 도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층상담의 유치활동 노력으로 지난 6월 2023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에서 우수지자체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도시민을 익산시로 초청하는 1박2일 귀농귀촌 체험학교, 서울·대전 제대군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제대군인 대상으로 진행한 체험교육 등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귀농귀촌 정책 홍보

▲귀농귀촌 준비... '농촌 살아보기로 체계적인 준비와 교육실습 지원'

귀농귀촌에 앞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귀농인의 집 등 익산시가 제공하는 임시거주시설에 머물며 농업·농촌을 탐색할 기회를 통해 정착 성공률을 높였다.

2020년 8월 준공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10세대가 입주 가능한 시설로 현재까지 51명이 입주해, 17명이 익산시에 성공적으로 정착했으며 남은 입주민들도 익산으로 정착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농촌 빈집을 수리해 귀농귀촌인에게 임대해주는 '귀농인의 집' 2개소 조성 3~5개월간 농촌에서 거주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 미리 농촌 체험을 제공해 인기가

기조영농기술 교육을 매년 2회 총 30강좌를 운영하여 작물재배, 토양관리, 농산물 마케팅, 농기계 실습 등 체계적으로 교육하며, 신규농업인과 선도농가간의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해 영농에 필요한 단계별 현장 실습도 진행하고 있다.

신규농업인에게 교육훈련비 월 80만원, 선도농가에게 교수수당 월 40만원을 지원해 안정적



행복귀촌 박람회 우수상 수상

인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안정적인 정착 유도... 분야별 지원사업 추진

귀농귀촌인의 수요에 맞춰 정착부터 생산까지 분야별로 다양한 보조사업을 발굴하여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총 7억



귀농귀촌인 실용교육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내부

찾아가는 귀농귀촌 상담·교육·박람회 등 추진 이주 준비부터 정착까지 단계별 지원정책 운영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활성화 통한 사후관리도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분야별 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귀농인 농업창업 정책자금 이차지원 △귀농귀촌인 농지 및 주택 임차비 지원 △귀농인 농업장려 수단 △귀농귀촌인 이사회 지원 등 12개의 자체사업이 있으며,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3년까지 농식품부 귀농창업 융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제 임시거주시설에 거주하며 기초영농기술

교육 이수 등 귀농준비 후 망성면으로 전입한 강영환 농가(한우)는 귀농지역 탐색과정 중 고항과 비교해 유리한 기후조건과 선도농가 인 프라 및 가능성을 보고 익산을 선택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을 통해 한우 사육 방법을 습득하고,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 생산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지원사업과 맞물려 익산의 편리한 교통과 교육환경, 다양한 소득작물에 적합한 온화한 기후로 귀농귀촌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후관리...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활성화'

시는 귀농귀촌인이 소속감을 느끼고 역귀농을 방지하며 역량강화를 위해 귀농귀촌협의회를 중심으로 멘토연구회 활동 등 신규 귀농인과의 소통에 힘을 쏟고 있다.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이 융화를 위해 올해 20개 마을 4개 동아리를 지원했고, 지역민과 귀농귀촌인 48명 대상으로 소형 굴삭기 기계차 용접 등 실용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밀착지원 프로그램 확대(현장실습, 현장지원단 등) 및 실수요 중심 사업 지원사업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농촌 생활을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개별적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며 "도시민이 귀농귀촌 시 필요한 실수요도 높은 정책발굴 및 사업추진으로 농촌 인구 유입을 활성화해 활기찬 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함께 걸어 온 50년, 미래로 여는 100년!

50th 고창모양성제

2023. 10.19. 목 - 10.23. 월 고창읍성 일원

10.19. 목 19시 포르테나	10.20. 금 19시 SG워너비 손태진	10.21. 토 19시 대이난의 듀오 크라잉넛	10.23. 월 19시 심수봉 설운도
-------------------------	---------------------------------	------------------------------------	-------------------------------

주요 행사
멀티미디어쇼
담성놀이, 강강술래
민속놀이(농악, 줄타기 등)
청소년 댄스페스티벌